

# 대한항공, 中 어린이들에게 '꿈의 도서실' 선물

### 향촌지역학교에 도서실 만들고 물품 기증

대한항공이 지난 10일 중국 윈난성 리장시 바이사 소학교에서 고향호 중국지역본부장, 주중한국문화원 한재혁 문화원장, 리장시 교육국 홍상취엔 부국장 등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꿈의 도서실' 기증 행사를 가졌다. 대한항공이 올해 도서실을 기증한 바이사 소학교는 소수민족인 나시족의 옛 수도에 위치한 294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다.

1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꿈의 도서실'은 중국의 향촌지역 학교에 도서실을 만들고,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책을 읽을 공간과 장서가 부족한 처지의 중국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10년부터 9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항공은 낯고 허름한 도서실의 책상과 의자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도



대한항공이 기증한 '꿈의 도서실'에서 고향호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가운데)과 바이사 소학교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한항공

서실을 채울 3000여 권의 도서와 PC, 체육 용품을 기증했다.

이번 '꿈의 도서실' 행사는 한국의 문화를 즐기려는 중국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활발한 한·중 문화교류를 이끌어

온 주중 한국문화원과 공동행사로 진행됐다. 기증 행사 후에는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선보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죽음까지 부른 카풀



기지수첩

구서윤 (산업부)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분신 시도'. 뉴스 속보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설마 카풀 때문일까'였다. 곧이어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카풀 시행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인은 카풀이 저지되는 날까지 시신을 카카오 분사 앞에 안치해주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다.

최근 카카오는 17일부터 카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강했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택시업계는 즉시 성명서를 냈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사실, 카풀은 카카오가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 몇몇 카풀 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가 대기업이라는 게 문제였다.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한 카풀에 카카오가 뛰어드는 것은 택시기사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더군다나 당초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을 해

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카카오는 카풀 이용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택시기사들의 걱정이 기우는 아니다. 카풀앱을 즐겨 쓴다는 한 지인은 "호출하면 배차도 금방 되는 데다가 택시보다 가격이 저렴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퇴출당했던 우버를 도입했던 뉴욕시는 우버의 일상화로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수입이 감소한 택시기사들의 자살이 늘자 승차공유 업체의 신규 면허를 1년간 동결하기도 했다.

카카오의 카풀을 도입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현재 벌어지는 갈등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만나는 과정에서는 으레 벌어지는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정답은 '상생'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면서 공존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택시업계도 노력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지금까지 카카오가 제안한 카풀 관련 협의에 수차례 참석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들이 일 때문에 승객들의 편리함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언제까지나 반대만 외치다가는 이용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yuni2514@metroseoul.co.kr

# LGU+ 위탁가정 아이들 교육 돕는다

### 'U+tv 아이들나라' 2년간 무상 지원

LG유플러스는 11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위탁가정에 'U+tv(IPTV)'의 영유아 전용 서비스인 'U+tv 아이들나라'를 보급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탁가정은 부모의 학대, 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조손가정, 친인척가정 등이 해당한다.

LG유플러스는 위탁가정을 돕고자 중앙가정 위탁지원센터와 함께 만3~10세 위탁아동이 있는 100가구를 선발했다. 이들 가정에서 U+tv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U+tv와 'U+인터넷(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2년간 무상 지원한다.

TV가 없는 가정에는 TV 단말도 보급한다. 미취학아동과 조부모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 이용가이드도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11일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U+tv 아이들나라 전달식'에 참석한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오른쪽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명애 관장,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정태영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오늘의 운세 12월 12일 (음 11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60년생 진실이 최효의 답은 아니다. 포용이 중요. 72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84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 아닐까.
- 소** 49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을 의식할 필요 없다. 61년생 감정 절제를 잘 해야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자식이 자랑거리로 전복 가져온다. 85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
- 호랑이** 50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62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과 비벌 인덕이 절실히 필요하다. 7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86년생 적의 적은 동지와 같으니 잠시 협조.
- 토끼** 51년생 추억에서 감정을 빼면 기억이 된다. 63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갔으니 해염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75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87년생 유래, 상례, 통쾌한 하루.
- 말** 52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64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7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88년생 가뭄에 단비 오듯이 순조롭게 일이 잘 해결.
- 뱀** 53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65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 알아서 판단. 77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89년생 말을 해보면 상대방이 내 맘을 알 수 있다.

- 말** 54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66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세탁. 78년생 동티가 직전이 가장 어렵다. 90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
- 양** 55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6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으니 잠시 자제. 79년생 기초와 원리에 충실해야 답을 얻을 수. 91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 원숭이** 56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한 하루. 68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침묵할 줄 알아야 현명하다. 80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다. 92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 낭패 당한다.
- 닭** 57년생 나이는 공로로 먹는 게 아니라니 자신을 절하. 69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1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 해야 열을. 93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개** 58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뭉치 않는다. 7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기 조심. 82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식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 9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 돼지** 59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1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든 도전. 83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95년생 공부 안 되던 공원에 가서 종일 머리를 식힐 것.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7	2		4	
3	6						1	
		2	5					6
		3	4					9
				3				1
4				8			2	
2					5			
	1			9		3		
6		4	7	2				8

	7	9				3	5	
1				6				7
2			3		7			9
					1			
		6	5		4	9		
					9			
9			1		3			2
8				5				3
	1	5				4	6	

스도쿠 정답

8	6	1	5	2	7	9	3	4
2	5	7	6	9	8	1	4	3
3	9	5	8	1	6	4	2	7
5	2	9	8	1	6	5	4	3
1	7	4	5	2	9	8	6	3
6	5	8	9	4	7	2	1	3
9	4	2	1	6	5	3	7	8
5	1	6	2	7	8	4	9	3
7	8	3	4	9	1	6	5	2

문제 제공 =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돌고 도는 업보의 유전

한 연예인의 부모가 아들이 출세하자 이를 알아본 채권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여 매스컴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례가 연일 인터넷을 달구며 의견들이 분분하다. 돈을 떼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피해금액도 금액이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도 떼이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아픔을. 어떤 이들은 연대보증까지 서술했다가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인정상 대부분 차용증도 잘 쓰지 않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빌려 준 그 순간부터는 잊으려서 돈을 받아야 하는 심정이 된다. 채무자 자녀의 입장에서 그런 내막을 몰랐을 수도 있고 부모들 역시 진상을 얘기하지 않았을 터이니 심정적으로는 충격이 클 수도 있다. 부모가 빌린 돈이니 법적 책임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심정적 연좌제 적용은 피하기도 힘들다. 가까운 만큼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업의 속성은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지은 불선한 업이나 선업에 대한 결과를 당대에 받지 않는다면 후대에 받는다는 믿음은 인과법의 중요 원칙 중의 하나다. 지금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자니 부모의 업이 자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과범에는 한 치도 오차가 없다는 것을 또 다시 느끼게 된다. 돈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에 실추됐고, 자식 된 도리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니 당연 잃은 게 더 큰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 생각이 바르고 복덕을 쌓아간다면 이는 행복한 삶을 위한 저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삶이 어렵다면 혹 전생의 빚을 갚는 중일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당장은 못 받아도 자식이나 후손에게 음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부모 몸과 체질의 유전자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의 덕과 선업의 결과 역시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식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조차 악담을 해서도 안 됨은 선인들은 경계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03호